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66년이 흘렀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지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스런 역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는 우리 겨레는 지금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행정에서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이고 변함없는 립장이다. 공화국의 자랑스런 력사는 조선반도에서 침략적인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의 실적으로 수놓아져있다.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주주의자들까지 참가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소집되고 여기에서 일치한 합의가 이룩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나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

어졌던 시기에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킨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남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서들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공화국정부는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적중앙정부수립제안, 폭넓은 협상제안과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 북남적십자회담제안,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 단계적인 군축제안, 경제회담, 체육회담, 학생회담제안 등 수많은 통일방안과 북남회담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왔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 는 범민족대회와 민족통일대추경과 같은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고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비상이 강화되였으며 민족의 자주통일열기는 크게 고조되였다. 1970년대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근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통일기운이 적국고조되였으며 새 세기에 이르러 우리 민족끼리가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으로 자리잡은것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들은 공화국의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 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

시로 된다.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애국애족의 내용과도 통일의지로 북남공동선언들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것은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마련됨으로써 통일의 환희가 삼천리강토에 넘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에서는 지난 시기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사면들이 이룩되였다. 민족변영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에 의하여 출기차게 전진하고있다. 가장 투철한 통일애국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돏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보수《정권》의 등장으

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지만 공화국은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지금까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올해에만도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고위급접촉이 진행되고 흘러진 가족, 친척상봉이 성사되며 관계개선의 첫장이 열리고있었지만 이러한 시기에 남조선에서 강행된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깨어지고 전쟁위험이 증대되였다. 최근에도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이 강행한 《올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최극단으로 치달아올랐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일시적인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북남선언들을 관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진군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변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혁



인권 유린범 죄자가 《인권기록》을 쓴다?

최근 남조선보수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1일 남조선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인권기록진서관》이라는것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힌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남조선당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북인권기록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것은 그를 통해 남조선인민들에게 공화국에 대한 편견과 동족대결의식을 주입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한것이다. 이는 가짜나 파국하에 빠진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행위이며 용서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오늘날 조선반도에서 인권문제로 피고석에 앉아야 할 당사자는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절대다수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말살당하고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가 일반인들은 물론 군대내에까지 만연한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얼마전에 남조선군에서 발생한 총기탄사사건과 구라살인사건을 합축한 《참으면 윤일병, 러지면 임병장》이라는 류행어가 보여준것처럼 남조선사회의 인권유린범죄행위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당국의 반민권책동을 규탄하는 교사선언 및 조외투쟁에 참가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 정계와 형사고발을 당하고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이 감시당하는 등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의 모든 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행위가 발생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반북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여전히 결연안이 되고있는 남조선당국에 책임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대화에 불성실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 막뒤에서 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열을 올리여왔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8월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올지 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

오늘 남조선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험악한가 하는것은 《북인권기록진서관》을 만들겠다고 나선 《국가인권위원회》하나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로 말하면 남조선 전 《정권》시기에 임명된 악질대결분자, 극악한 반통일분자가 위원장자리에 틀고앉아 북남관계파란과 반통일대결책동을 앞장서 벌리고있는 모략기관에 불과하다. 이 기관이 지금껏 한일이란 뽕산참사와 같은 당국의 심각한 인권유린범죄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면서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서만 왜가리청을 돌곤짓뿐이다. 저들이 용당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이 기관의 실태가 얼마나 한심하였으면 국제인권기구가 5년마다 실시하는 나라별 인권기구에 대한 로베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안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등굣길》관정을 받는 수모까지 당하였는가.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당국이 남조선내부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면서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열을 올리는것은 저들에게 쏘리는 민심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알락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책동으로도 저들의 반민권적책제를 가리울수는 없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의 파국을 더욱 부채질하며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한 철추를 단결것이다. 김 연 희

북남관계개선의 커다란 장애물

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유사시 조선반도에 투입될 미군 부대들과 거의 모든 지휘소, 남조선특해공군의 련대급이상 지휘기관들, 방대한 규모의 각종 최신전쟁장비들이 투입되였다. 그밖에도 남조선의 《정부》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 수십만에 달하는 민간인들까지 동원되였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 것이 이번 연습에서 사상 처음으로 핵선제타격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의 세부내용들을 검토하고 실천에 적용하는 훈련을 감행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제임으로 대결을 제의한 마당에서 북을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끝낼때 벌려놓은것은 민족의 평화통일원인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용납할수 없는 반대화, 반평화적인 행위이다. 지난 시기의 북남대화과정 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화와 전쟁연습은 쌍립될수

없으며 전쟁위험이 조성된속에서는 북과 남이 설사 마주앉는다 해도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지난 시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던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들이 자주 중단과 결렬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던것도 다름아닌 남조선에서 대화일방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었다.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의로운 사람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어 날뛰면서 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을 적극 추종해왔다. 지난 7월 2일에도 서울경찰청의 경찰관 20여명이 여든이 넘는 늙은이인 범민련남측본부 명예고문에게 달려들어 3시간이 넘도록 길가에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횡포를 부리였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경찰

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으며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당국이 보수언론들에 대한 통제도 단단히 해야 한다고까지 하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경찰이 증빨나게 나서서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거리낌없이 해냈으니 이것을 어찌 단순한 《실수》라고 해야 하겠는가. 이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당국의 《의중》을 반영한 행위라고밖에 는 달리 말할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온 겨레가 바라는것은 대결이 아니라 화해이며 분열이 아니라 통일이라는것을. 그들이 민심에 역행하여 계속 대결과 분열을 조장한다면 겨레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리 어 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을 단죄

4일 남조선인터넷신문 《사람일보》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부당한 행위를 비난하는 학자 고승우의 글이 실렸다. 글은 최근 경찰이 북관련기사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기사삭제를 강요하는 행위가 전지적적으로 벌어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경기도 서울과목도의 경찰청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들에 북관련기사들을 삭제할것을 요구하는

경찰의 태도는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언론과는 거리가 먼 경찰이 나서서 기사삭제를 요구하는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시기에도 찾아볼수 없는 권력량용이라고 단죄하였다. 글은 경찰이 언론의 보도활동을 문제삼아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북침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미군과 남조선군

인간 추물을 끼고 돌아 봐야

본사기자 주광일

최명제